

<컨텐츠를 위한 문화, 예술교육>

배한철 매일경제신문 문화부 차장

○ ‘스웨디시 팝’을 창조한 스웨덴의 음악교육

비영어권에도 인구 소국(906만명)의 한계에도 미국, 세계 3대 대중음악 수출국으로 부상. 1970년대 아바를 시작으로 ‘스웨디시 팝’ 장르화.

1990년대말 이후에는 프로듀싱 및 작곡분야에서 더 큰 성공. 미국의 ‘올해의 작곡가상’을 5회나 수상한 맥스 마틴이 스웨덴 출신. 또 앤더스 배기 등 다수의 프로듀서 배출. 보아, 소녀시대 노래도 스웨덴 작품들.

스웨덴 특유의 수준 높은 음악교육이 성공요인. 스웨덴은 모든 국민에게 문화생활의 기회를 동등하게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예술교육을 매우 강조.

9년제 초등교육과정의 경우 예술교육의 비중은 영어교육과 동일하게 높은 수준. 예술교육 중에서도 음악교육의 비중이 가장 크며, 음악이론, 연주, 작곡 분야에서 폭넓게 이뤄져 9년 과정을 이수하면 간단한 작곡 및 평론이 가능할 정도. 악기교육도 공교육에서 무상으로 제공.

○ 문화예술 가르키는 픽사대학

토이스토리, 카 등의 애니메이션을 제작한 픽사는 모든 작품을 기술과 예술이 융합된 협력시스템에 의해 제작. 애니메이터와 작가, 아티스트로 구성된 크리에이티브 팀은 집단 창작시스템의 핵심. 실제 연기능력이 있는 애니메이터를 고용해 생생한 캐릭터를 제작.

사내교육기관인 ‘픽사대학’을 설립하고 글쓰기, 문학, 철학, 즉흥연극 등의 과정을 개설. 현재 100개가 넘는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들에게 주당 4시간의 자유로운 교육시간을 보장

○ 문학적 상상력으로 미래를 설계

두바이의 CEO로 불리는 셰이크 모하메드 국왕은 바다 위에 야자수 모양의 인공섬을 띄우고 사막에 실내 스키장을 세우면서 두바이를 중동의 석유수출국이 아닌 즐길 거리가 많은 도시로 탈바꿈시킴

모하메드 국왕은 통찰력과 도전정신을 가진 치밀한 사업가인 동시에 수천편의 작품을 발표한 시인

도브, 폰즈, 바세린, 립톤, 베르톨리 등을 생산하는 영국계 다국적 기업인 유니레버는 정기적으로 시인과 작가를 초청해 글쓰기 워크숍을 진행하고 연극배우가 연출하는 역할극을 통해 직원들의 커뮤니케이션 역량 점검. 직원들의 창의적 상상력 함양이 목적.